“교육지원청, 지역소멸 대응 허브로”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교육행정 혁신 구상
“중간 행정기구 아닌 지역교육 문제 해결 주체로”
주민 참여형 교육장 임명제 단계적 도입도 제시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 책임교육 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한 교육행정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 책임교육 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한 교육행정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북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도농 간 교육격차 심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가중 등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전북교육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행정 권한을 현장으로 돌려주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 구조로는 지역별 교육 현실에 맞는 변화가 어렵다고 진단하며, 지역이 책임지고 실행하는 교육행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지원청을 단순한 중간 행정기구가 아닌 지역교육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교육혁신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교육지원청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장 임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육장이 도교육청 중심이 아닌 지역 학교와 주민을 바라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사와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사와 예산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지원청을 ‘학교 종합지원 허브’로 개편해 체험학습과 안전, 시설, 행정 지원을 통합 관리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 혁신안은 단순한 교육행정 개편이 아니라 학교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라며 “이제는 학교를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학교로 지역을 살리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고 인구 유입 기반까지 만들겠다”며 “권한을 쥐는 교육감이 아니라 권한을 나누고 결과로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오상근 기자

내년 개교 특수학교 2곳 이름 지어주세요

전북교육청, 교명 선정 공모 진행
전주 · 군산 2개 학교 대상… 1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특수학교 2곳의 정식 교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1일 가칭 ‘전주보름학교’와 ‘군산자음학교’를 대상으로 교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학교 모두 특수학교로, 개교를 앞두고 학교의 정체성과 지역적 의미를 담은 정식 이름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자우편, 우편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명은 특수학교의 교육과정과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보편적이고 적합한 명칭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접수된 제안은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학교 이름은 학교의 정체성과 지역의 의미를 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교명이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형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독서교육 선도학교 탐방
정읍 샘고을중 찾아 운영 현황 점검 · 의견 청취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1일 교육부 지정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인 정읍 샘고을중학교를 방문해 독서인문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나섰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 현장 정책 탐방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 권한대행이 1일 교육부 지정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인 정읍 샘고을중학교를 방문해 독서인문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샘고을중학교는 ‘아침 10분 독서’와 ‘학생 도서부 동아리 지원’ 등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독서인문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선도학교 지정 2년 차를 맞아 교과별 도서관 협력 수업 모델 확산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 심화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용한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독서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도서 선택권을 넓히는 주제별 북큐레이션과 스스로 독서 활동을 기획하는 학생 주도형 독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유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 탐방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2027년도 전북형 독서인문교육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 체계 강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깊이 있는 학습’과 독서교육을 연계해 교과 수업 시간 안에서 독서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샘고을중학교가 보여준 독서교육 모델은 지역 학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아침 독서의 일상화와 교과 연계 독서 수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전북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합위기학생 지원 광역체계 본격

전북교육청, 제1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복합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광역 단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교육청은 1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전북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는 복합 위기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정기회의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복지·상담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전북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계획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이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 지원 체계의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기존 사업별로 분절됐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복합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통합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전문 상담기관과 복지기관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출범은 우리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2027학년도 수능시험 대비 어떻게?

전북교육청, 상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
전북교육청, 3일 학습전략 설명회… EBS와 공동 주최
출제 경향 분석 · 영역별 준비 전략 · 준비 방법 등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교육청은 1일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년 상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교장공모제의 주요 내용과 유형별 지원 자격, 신청 및 지정 절차를 비롯해 내부형·개방형 운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실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38개교와 중학교 20개교로, 대상 학교 가운데 교장 결원학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5월 중 교장공모 실시학교를 지정하고, 6월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학습전략 설명회를 연다.

전북교육청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으로 오는 3일 오후 7시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고3 학생과 수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능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영역별 학습 방향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안내해 수험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7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선택형 수능 체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수능 출제 경향 분석과 함께 영역별 학습 전략, 시기별 준비 방법, 고3 생활 로드맵 등 실제 수험 준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이 집중적으로 안내된다.

강사로는 EBS 대표 강사인 이현진 교사(국어)와 정유빈 교사(수학)가 참여해 성적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실천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어와 수학 영역으로 나눠 학생들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심층적인 학습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회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도 해소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국어와 수학 순으로 진행되며, 녹화 영상은 추후 EBS 누리집에 탑재돼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2027학년도 수능은 교육과정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시험으로 수험생들의 부담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와 전략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학생교육문화관 수영장 재개장… 이달부터 직영 전환

남원학생교육문화관 수영장이 직영 체제로 전환돼 1일 재개장했다.

이번 직영 전환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확대와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수질·시설관리 책임성 제고를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수영장은 25m 5레인 규모의 성인풀과 유아풀, 샤워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는 학생 수상안전교육 시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4월부터 10월까지 남원지역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 생존수영 능력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참여형 교육 통한 청렴 실천 문화 확산

전주교육지원청, 상반기 ‘청렴 DNA 확산 교육’
미술 · 퀴즈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 참여 유도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여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1일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청렴 DNA 확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채선영 교육장의 청렴 특강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문양근 대표의 강의로 구성됐다.

채선영 교육장은 ‘최우수를 넘어 신뢰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렴 방안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특히 청렴 DNA 확산 교육을 통해 ‘청렴 동행 일상화’를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대외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문양근 청렴 전문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 부패방지 관련 법정 의무 교육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률 내용을 미술과 퀴즈 프로그램 형식으로 전달해 직원들의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채선영 교육장은 “청렴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며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실천과 신뢰 기반의 소통을 통해 청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주교육지원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